

# 남원 기업 42곳 우수 제품 한 곳에서

### '로컬편집샵 남원종합상사' 개소 작은 업체들 연합해 공동 사업 신활력플러스추진단 성과 선보여

남원지역 기업 42곳의 우수 제품을 만날 수 있는 '로컬편집샵 남원종합상사'가 10일 문을 연다. 남원시와 남원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은 남원시청 인근에 '남원종합상사'를 열어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의 3년간 사업 성과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은 그동안 지역 소기업을 육성하고 교류 사업을 지속해서 펼쳐왔다. 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중 하나인 '남원종합상사'는 지역 소기업 연합의 공동 사업을 뜻한다. 작은 업체가 힘을 모아 우수한 제품을 함께 생산하고, 판매, 홍보하는 연합 경제 활동을 한다. 좁은 판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품 차별화를 꾀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상설매장 '로컬편집샵 남원종합상사'에는 추진단에서 육성한 경제 액션그룹과 지역 소기업 42곳이 참여한다. MZ 세대의 취향을 겨냥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그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남원시가 지난해 10월 추석 연휴를 맞아 시범 운영한 '로컬편집샵 남원종합상사'에서 손님들이 남원기업들의 우수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남원시 제공>

점포는 남원시청 인근 골목길 안쪽에 동지를 틀어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생각이다. 이곳은 '한 칸 가게'라는 이름으로 지역 기업에 42개의 분리된 공간을 제공한다. 또 남원만의 특징이 담긴 '남원의' 꾸러미를 지속해서 기획·제작할 방침이다. 앞서 남원시는 지난해 10월 추석 연휴와 드론제전 기간을 맞아 지역 30개 업체가 참여하는 '로컬 편집샵 남원종합상사'를 시범 운영하기도 했다. 남원시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관계자는 "로컬편집샵 남원종합상사가 남원의 우수한 상품을 알리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라며 "지역민들이 먼저 우리 지역 상품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정읍사랑상품권으로 택시 요금도 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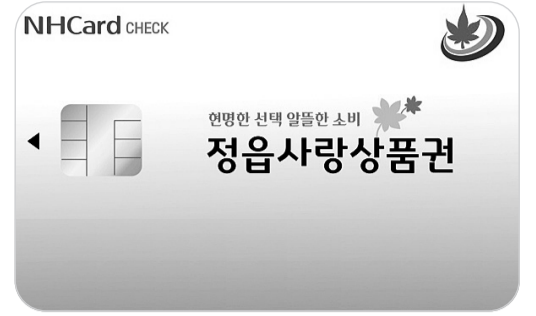
### 내일부터 시행

정읍시는 오는 11일부터 정읍사랑상품권(카드형 상품권·사진)으로 택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정읍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택시는 개인택시 338대, 법인택시 168대 등이 있다. 정읍시는 한국조폐공사, 교통사업자(티머니, 이동의 즐거움) 간 결제 연동 체계를 구축해 택시 운수업 종사자로부터 신규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았다.

정읍사랑상품권을 이용하면 10%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정읍사랑상품권 카드는 정읍 지역 상품권 판매 대행법인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해 발급받으면 된다. 지역상품권 모바일 앱(CHAQ) 또는 정읍사랑상품권 카드를 통해 구매(충전)할 수 있다.

정읍사랑상품권은 올해 1분기 200억원, 2-3분기 각 150억원, 4분기 100억원 등 모두 6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올해 2분기 발행은 지난 5월 끝났다. 지난달 말



기준 정읍사랑상품권 누적 가입자는 5만9000여명, 가맹점은 5800곳으로 집계됐다. 3분기 발행액 150억원은 오는 7월1일부터 구매할 수 있다. 1인 월 70만원, 연 600만원까지 살 수 있고, 최대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사랑상품권과 택시요금 결제 연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택시 종사자와 이용객 간 현금 거래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사용자 편의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전국 최고 품질 '고창수박' 본격 출하

### 선운산농협 농산물 출하 발대식·대성농협 대박 기원제



심덕섭(가운데) 고창군수 등이 지난 8일 대성농협에서 '명품 수박 출하 대박 기원제'를 열고 올해 고창수박 출하를 알리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의 대표 농산물인 '고창수박'이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했다. 고창군은 지난 8일 '선운산농협 농산물 출하 발대식'과 '대성농협 명품 수박 출하 대박 기원제'를 잇따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행사는 고창수박의 주산지인 고창군 무장면에 있는 선운산농협 농산물유통센터와 대성농협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각각 열렸다. 고창수박은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풍부한 일조량과 유기물이 풍부한 황토에서 재배돼 당도가 높고 식감이 아삭해 전국 소비자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고창군은 고창수박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리

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 지명을 내건 상표권을 통해 고창수박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창수박 출하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 김만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김기욱 선운산농협 조합장, 박윤규 대성농협 조합장, 수박 생산 농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박 기원제를 지내고 수박 선별 과정을 시찰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수박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수박재배 농가와 지역농협의 노력에 감사로 전한다"며 "앞으로도 고창수박 가치 향상과 유통망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고창군 "관공서 사칭 막는다" '스마트 레터링 서비스' 도입

고창군이 오는 11일부터 민원인에 전화를 걸 때 '부서 행정 전화' 표시를 하는 '스마트 레터링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관공서로 속인 전화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 전화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행정 전화번호를 전화금융 사기(보이스 피싱)와 스팸(광고) 전화로 오인해 받지 않아 민원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도 있었다.

고창군이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 때는 민원인의 스마트폰 화면에 고창군 상징과 부서 이름, 전화 번호가 표시된다. 통화가 끝나면 군청 누리집 카드뉴스와 관광 정보 안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10일까지 시범 운영한 뒤 11일부터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설치된 '보이는 음성 자동 전달(ARS) 서비스 공유 앱'을 활용해 제공된다.

아이폰과 '보이는 ARS 서비스 공유 앱'이 설치되지 않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부재중 통화 알림'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사용을 원치 않는 민원인은 '수신 거부' 버튼을 통해 중단할 수 있다.

유창형 고창군 행정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남원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32곳으로

### 사업비 1억여원 투입 부식비·조리원 인건비 지원



남원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마을 주민들이 영농철 점심을 함께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가 올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대상지를 32곳으로 늘려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농번기 공동급식은 일손이 부족한 영농철에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사를 준비하는 수고를 덜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은 지난 2016년 11곳에서 시작했다. 올해는 32곳에서 1억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된다. 마을 한 곳당 320만원을 들여 연간 40일 기준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공동급식 지원사업과 같이 농민들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

